

얀 루프 오헤른

호주, 애들레이드

“위안부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미하원 121 결의안을 지지하며

2007년 5월 22일

미하원 낸시 펠로시 의장님 귀하

하원의장님,

2007년 2월 15일 저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환경소위원회에서 열린 “위안부” 인권 보호 청문회에서 증언할 영광을 누렸습니다.

제가 이용수씨, 김군자씨와 함께 증언한 목적은 제가 젊은 여성으로서 저의 의지와 반하여 제2차 대전 기간 동안 일본 황군(Imperial Armed Forces)을 위한 “위안부로” 지나면서 겪었던 모욕과 수치,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대한 매우 개인적인 경험을 공개적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도는 마이클 혼다 의원이 발의한 H.Res.121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전폭적인 저의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라는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모호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죄하고 “역사적 책임을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1942년 제가 19살 이었을 당시 일본군이 자바섬을 침략했습니다. 수천 명의 여성과 아이들과 함께 저는 3년 반 동안 일본 포로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매음굴이 “처음 열린 날 밤”의 끔찍한 기억은 평생 저를 괴롭혀 왔습니다. 제가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강간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일본인에 강간당하면서도 한번도 저항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계속 구타를 당했습니다. “위안소”에서 저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조직적인 구타와 강간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일본인들이 저에게 한 일에 대해서는 용서했지만 결코 그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위안소”에서 지내는 동안 일본인들은 저를 학대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저에게 남겨진 것은 찢겨지고 부서진 몸뿐이었습니다. 일본 군인들은 저의 젊은 시절을 망쳐놓았고, 저의 젊음과 자존심, 존엄성, 자유, 소유물, 그리고 저희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에게서 가져가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에 대한 저의 신념과 사랑이었습니다. 이는 저의 것이었고 그 누구도 저에게서 빼어갈 수 없었습니다. 일본군이 저에게 저지른 모든 행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저의 깊은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위안부”들은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끔찍한 수치심과 더러워졌다는 생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 여성들의 망가진 삶이 진정한 국제 인권문제가 되는데 50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원의장님, 제 모든 것을 다해 H.Res.121을 고려해주신데 대해 미 하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결의안은 오늘날까지 살아 남은 소수의 “위안부”여성들에게 어느 정도의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얀 루프 오헤른

광고에 도움주신 분들: 대뉴욕지구 종군위안부결의안지지연대 (Greater New York Support 121 Coalition), 대워싱턴DC 종군위안부결의안지지연대 (Greater Washington, DC Support 121 Coalition), 캘리포니아 주 종군위안부결의안지지연대 (121 Coalition in California), 전 미 121결의안 지지연합(National Support 121 Coalition), 뉴욕 뉴저지 주 재미 한국 한인유권자센터(National Support 121 Coalition)